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B [37~39]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 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라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라, 별나라,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라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보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 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 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계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계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폐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

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달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종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 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뵘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당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 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독 거북이 아뢰기를,

“㉣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으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이다.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㉔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기를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등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㉒: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㉓: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㉔: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토끼전의 서사적 구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상대 설득이나 지혜 대결이 서사의 기초로 작용한다고 해요. 상대가 모르거나 불리한 것들로 대화를 이끌어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삼자를 끌어들이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인물이 대결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집중하면서 읽어 봅시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이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고.”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어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 번 죽지 두 번 죽음은 없는지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똥똥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만치 물러났으니,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리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에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보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 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 더러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다.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점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와락 싸고, ㉢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육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단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총 철환 달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쭈루 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먼저 용왕이 병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라가 육지에 나와 약을 구하는데 호랑이를 만나게 되네요. 자라는 호랑이에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지만 고기 값을 하겠다며 마음을 굳게 먹고 호랑이에게 덤빉니다. 자라와 호랑이의 대결 구도가 나오네요. 자라는 방망이 총이 나온다는 거짓말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호랑이에게 겁을 줍니다. 호랑이는 겁을 먹어 자라에게 어찌 이곳에 나왔는지 물어보게 돼요. 자라는 공중에서 떨어져 목이 이렇게 되었다며 그 약으로 호랑이 쓸개가 좋다고 하니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호랑이는 자라의 말을 듣고 결국 물똥을 싸면서 도망가게 되죠. 호랑이가 모르는 내용으로 호랑이에게 겁을 줘 자라가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재주가 좋아서 겨우 살았다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네요. 계속 읽어 봅시다.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뵘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렁출렁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잔치가 끝난 후 왕께 아뢰어,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 병에 원기 회복하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이 자연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며칠 안으로 나으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사슴을 말이라 해도 믿는 지라. 즉시 명령을 내리되,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오래 묵었으니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기를,

“㉔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으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삼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이웃나라가 알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이다.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응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별주부 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를 함께 온 정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해 주리라.”

하고, ㉕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두 사람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신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마음에 고이하기를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태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나?”

- 작자 미상, 「토끼전」 -

중략 이후의 내용은 자라가 토끼를 용궁에 결국 데려가서 토끼의 간을 주려고 해요. 하지만 토끼는 죽기 싫겠죠? 그래서 토끼도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의서를 보았는데 병을 낫게 하는 데에는 왕배탕, 즉 자라탕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해서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토끼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이에요. 왕도 토끼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의도둑 거북이 이 자라는 공을 이루고 왔으니 자라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고, 대신 암자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제삼자를 끌어들이는 부분이에요. 이 암자라는 자라의 부인이네요. 자라는 부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에 토끼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거기에 토끼는 화를 내며 끝이 나죠. 자라와 호랑이의 대결 구도, 자라와 토끼의 대결 구도를 잘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본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호랑이에게 맞서는 장면입니다.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층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호랑이는 갑주와 방망이를 보고 자라를 무서워하죠?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호랑이는 자라가 무서워 도망쳤지만 자기 재주 덕에 살았다며 정신승리하고 있어요.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자신의 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용왕의 믿음? 말도 안되는 소리죠.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은 없어요.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후회하고 토끼에게 비는 부분만 있죠.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①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못 보겠네', '부족던가'의 반복, 대구를 통해 자라의 심경이 드러나죠.

② ㉡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빙빙', '쩨쩨' 등의 의태어를 활용하고 있죠?

③ ㉢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호랑이가 달아나는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네요.

④ ㉣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옛 말씀을 활용해서 임금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⑤ ㉤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오답입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 <보 기> —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호랑이는 몰랐던 별주부의 근본을 듣고 무섭다고 합니다. 옳네요.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호랑이가 무식해 자라의 말을 무수히 새긴다는 대목에서 호랑이가 무지함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자라는 호랑이를 공격하죠.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토끼를 회유하는 장면은 없죠? 오히려 자라는 토끼를 꾸짖고 있어요.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자신의 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왕배탕, 즉 자라탕이 좋다고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었어요.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 토끼는 자라보고 자기를 여기로 유인해 날 죽게 하려 했다면서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꺼내 자라를 꾸짖고 있어요.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B [40~42]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뜨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뭇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정철-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비 시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옷 버셔 문허진 담 누라서 곳쳐 쏘고  
㉡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갓튼 얼굴리 편호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누 타시라 홀셔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뭇도 아니 허려니와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 니 주인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흐야 사되나이다  
㉣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흐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험 엮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유학에서는 가족의 확장된 형태가 국가라고 해요. 집안이 화목하려면 집안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화목하려면 군신들이 본분을 다해야 해요. 조선 시대 시가들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시가 많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도 그러한 내용이겠죠?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 어와 동량재를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고

험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 험뜯어 기울어진 집에 의논도 많기도 많구나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는다

→ 여러 목수가 자를 들고 허둥대다 말 것이다.

- 정철 -

-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동량재를 저렇게 다루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험뜯어 기울어진 집에 의논이 많다고 합니다. 동량재를 저렇게 다루어서 쓸 만한 재목이 없게 되어 집이 기울어졌다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목수가 허둥대다가 말 것이라고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보기>에서 봤듯이 국가를 집에 비유해서 표현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동량재 또한 국가에 비유해서 해석해봅시다. 여기서 동량재는 군신, 즉 훌륭한 인재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 인재들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아 나라에 잡음이 많아지고 그것을 고치지도 못한 세태를 비판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 바깥 마름 달화주\*도

→ 바깥 별감(남자 하인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 많이 있어 달화주(세금을 받던 주인)도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 자기 소임을 다 버리고 몸을 꺼릴 뿐이로다.  
 비 시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곱쳐 이며  
 → 비 새어 썩은 집을 누라서 고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누라서 곱쳐 쏘고  
 → 옷 벗어 무너진 담 누라서 고쳐 쌓을까?  
 ㉠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 불한당 구멍 도적이 멀리 가지 않았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 화살을 찬 상직군은 누라서 힘써 할까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 큰나큰 기울어진 집에 마누라 혼자 앉아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옥 갓튼 얼굴리 편하실 적 몇 날이리  
 →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면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누 타시라 홀셔이고  
 → 이 집이 이리 되기 누구 탓이라 할 것인가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하려니와  
 →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 하려니와  
 도로혀 헤여하니 마누라 타시로다  
 → 도로 생각하니 마누라 탓이로다  
 ㉡ 니 주인 외다 흥기 종의 죄 만컨마는  
 → 내 주인 잘못되었다 하기에 종의 죄 많건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하야 사뢰나이다  
 → 그렇다 세상 보기 민망하니 말씀드립니다  
 ㉢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  
 → 새끼 꼬기 마시고 내 말씀을 들으소서  
 집일을 곱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집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종들을 휘어 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노 날니이다

→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가 저절로 일 겁니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별감: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이 작품은 허전의 <고공가>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말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 작품 또한 집을 나라에 비유해서 쓰인 작품이죠? 이러한 내용은 (가)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그 세태에 대한 비판만을 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잘못이 종의 잘못만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해결책은 종들을 휘어 잡고, 상벌을 제대로 밝히고, 어른 종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른 종은 말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종의 잘못과 더불어 돌이켜 생각해보니 상전의 탓도 있다고 하면서 상전에 대한 충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어요. 바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4.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나)에서는 '집일을 갖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라는 대목에서 연쇄를, 3, 4행에서 '누라서 갖쳐'가 반복됨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에서는 그런 표현법을 찾을 수 없네요.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가)와 (나) 둘 다 설의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안타까움 또한 드러납니다.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가)에서는 직유법이 쓰인 곳이 없네요. 오히려 (나)에서 '옥같은 얼굴'에 직유를 사용하고 있네요.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가)와 (나) 둘 다 색채어는 찾을 수 없어요.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와 (나) 둘 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 그런 내용은 없죠.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① ㉠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제 소임을 다 버리는 존재? 자기 직분을 망각한 존재 맞네요.

② ㉡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멀리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 가까운 세력이 맞아요.

③ ㉢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주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새끼 소기를 마르시라고 했으니 하지 마라고 하는 행위이지 당부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⑤ ㉤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 상벌을 밝혀야 한다고 했으니 옳습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①

— <보 기> —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완전히 맞는 말이죠? '동량재'와 '어른 종' 둘 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죠.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국가를 나타내는 것이 맞지만, (나)의 '기운 집'은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 주인이 할 일을 말해주고 있지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에요. 나라가 위태로운 상태는 맞습니다.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가)에서 '의논'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뜻해요. (나)에서 '논의'는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논의를 말하구요.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험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가)의 '못 목수'는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신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무관심하다면 자를 들고 허둥대지조차 않을 것이니까요. (나)의 "험 업는 종"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하지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가 아니에요.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허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 (가)의 '고자 자'는 신하들의 무능력함을, (나)의 '문허진 담'은 위기에 처한 국가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